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진행**

설명절, 광명성절을 맞으며 공연 진행
약 1억 3 000만년전의 새화석 발굴



조선

주체110
(2021) **3**

(776)

옥돌공예

《비운준마송학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강택민동지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양상곤동지가
주체80(1991)년 10월 6일에 올린 선물

차례 CONTENTS

특별 소식

- 2 ||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지도
- 8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 10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연들을 관람하시였다
- 22 ||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 확대회의 지도
- 24 ||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동지께서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 강습회 지도

오늘의 조선

- 28 || 강철생산으로 들끓는 강선
- 30 || 생산능력보강을 기업전략으로
- 32 || 각지에서 봄철나무심기 진행
- 36 || 3. 8국제부녀절을 축하합니다
- 40 || 변모되는 평양
- 48 || 누구나 즐겨찾는 백화점

역사, 문화

- 52 || 역사의 갈피를 더듬어
- 58 || 약 1억 3 000만년전의 새화석 발굴
- 64 || 옥류관의 평양랭면
- 68 || 민속명절 정월대보름
- 72 || 옛 그림속에서
- 76 || 민족의 춤가락을 전해가는 사람들
- 80 || 도자공예가일가
- 84 || 국조 참매
- 88 || 개성고려인삼

관광

- 92 || 평양골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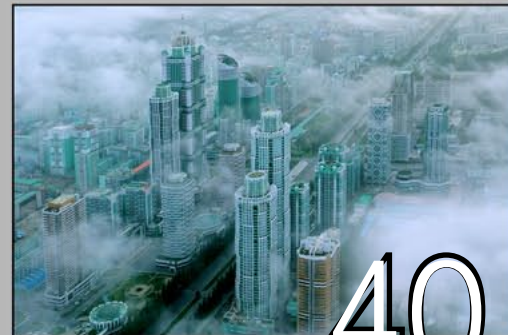
표지 : 광명성절기념공연중에서



10



36



40



52



58

편집 신재철, 김국철, 김정철, 김금성,
서철남, 유종일, 김규성, 송룡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지도

주체110(2021)년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당 제8차대회 결정집행을 담보하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투쟁방략 제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의 주제110(2021)년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전원회의를 운영집행하시였다.

의정토의에 앞서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게 된 기본취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가 당 제8차대회의 사상과 정신에 공감되고 양양된 대중의 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당대회결정관철에 강력히 인도함으로써 당조직들과 당원들에게 5개년계획 수행의 첫해부터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올수 있는 구체화된 실천의 무기, 혁신의 무기를 안겨주어야 한다고 언급하시였다.

당대회결정은 앞으로 5년동안 각 분야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장기과업들이므로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사업계획들을 세부적으로 따져보고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고착시켜 시달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특히 비상방역 상황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경제건설을 활기차게 내밀며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향상된 생활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조치를 취하려는 당중앙의 결심과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정들을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이 토의되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강령적인 보고 **《당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먼저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첫해 경제사업을 잘 조직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첫해 사업을 전개하면서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국가적인 비상방역규률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발양시키고 인민생활을 최대한 안정시키는 방향에서 올해 경제사업을 조직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다음으로 올해 인민경제 부문들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과학, 문화부문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경제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업들을 특별히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경제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인민경제계획수행을 법적으로 담보하도록 하기 위한 과업들을 제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당사업의 화력을 올해 과업수행에 집중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연 3일간에 걸쳐 하신 보고를 결속하시면서 한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우리 인민을 위한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새롭게 확정하였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일군들속에 내재하고있던 소극성과 보신주의를 비롯한 사상적병집들을 찾아내고 시정할수 있게 되였다는 의미에서 이번 전원회의가 매우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시기에 소집되였다고 언명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분과별협의회를 통하여 올해 사업계획을 정확히 확정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본 전원회의가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에 펼쳐나선 전당의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보다 큰 신심과 용기를 가져다주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게 하자고 강조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과 결정서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분과별협의회가 있었다.

전원회의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첫째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 《전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릴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하시였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전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릴데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는 셋째 의정 《당중앙위원회 구호집을 수정함에 대하여》와 넷째 의정 《〈조선로동당규약해설〉심의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다섯째 의정 《조직문제》를 심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동지께서 전원회의를 결속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는 상정된 모든 의정들에 대한 토의를 성과적으로 마치였다고 하시면서 지난 4일동안 매일 매 순간 지도기관 성원들이 긴장되고 동원된 속에서 당과 국가사업토의에 진지하게 참가해준데 대하여 감사히 여기며 이는 자기 인민앞에 다진 서약을 엄숙히, 철저히 리행하여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무거운 임무를 다하려는 의지의 발현이고 표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전원회의결정을 목숨같이 귀중히 여기고 당결정이 무조건 철저히 집행되도록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사랑하는 자기 인민에게 우리의 충정을 겸열받을 때가 되였다고 하시면서 모든 동지들이 더 노력하고 분투하여 우리 당의 웅대한 투쟁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혁명에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줄것을 부탁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2월 16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력사가 알지 못하는 애민헌신의 한생을 불같이 사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대하가 끝없이 굽이쳐오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을 찾으신 총비서동지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불철주야의 혁명령도로 우리 조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참다운 사회주의국가로 빛내이시고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튼튼한 토대를 다져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연들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설명절경축공연을 관람하시고 출연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주체110(2021)년 2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2월 11일 설명절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공훈국가합창단과 주요예술단체 예술인들이 출연한 공연무대에는 혁명의 년대들을 거대한 변혁과 승리로 빛내여온 조선로동당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심을 담아 인민들이 더쳐부른 기념비적인 찬가들이 울랐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무대에 오르시여 훌륭한 예술공연을 보여준 출연자들의 성의에 감사를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월 16일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광명성절기념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공연에는 국무위원회 연주단, 공훈국가합창단과 주요예술단체의 예술인들이 출연하였다.

애국가로 시작된 공연은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 진행되였다.

공연이 끝난 후 총비서동지의 재청에 따라 어버이장군님을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노래하며 조선인민이 애창하여온 전인민적찬가 《친근한 이름》이 다시금 울려 퍼져 장내를 무한한 격정과 환희로 설레이게 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파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출연자들에게 전달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광명성절기념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주체110(2021)년 2월





대 절 찬

여성2중창과 남성합창 《친근한 이름》

걱정의 파도 장내를 진감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확대회의 지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확대회의가 2월 24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확대회의에서는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정치활동과 도덕생활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결함들을 지적하고 인민군대안에 혁명적인 도덕규율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문제가 주요하게 토의되었다.
회의에서는 인민군대안의 모든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

에서 혁명규율과 도덕기풍을 세우는것을 현시기 당중앙의령군체제를 철저히 확립하고 전투력을 강화하며 혁명군대의 고상한 정신도덕적우월성을 발양하기 위한 주되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강도높이 진행할데 대하여 강조되었다.

회의에서는 무력기관 주요직제지휘성원들의 해임 및 임명에 관한 조직문제가 취급되고 주요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동지께서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 지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강습회를 계기로 시, 군당책임비서들의 안목이 더 넓어지고 정치의식과 혁명열의가 더한층 양양되어 자기 시, 군을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락원으로 변모시켜나가는데서 새로운 큰걸음을 내짚으리라는 확신을 표시하시였다.

강습회에서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다지며 시, 군을 자립적으로,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재인식시키는 강습이 진행되였다.

시, 군당책임비서들의 사업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폐강사를 하시면서 위대한 우리 인민을 섬기는 길에서 인민들이 실지 인정하는 진짜배기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자는것을 열렬히 호소하시고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 폐강을 선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3월 6일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에 참가한 도, 시, 군당책임비서들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가 3월 3일부터 6일까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회의실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습회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개강사를 하시면서 당정책의 말단지도단위, 집행단위이고 농촌경리와 지방경제를 지도하는 지역적거점이며 나라의 전반적발전을 떠받드는 강력한 보루인 시, 군의 중요성과 시, 군당위원회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강습회에서는 시, 군당책임비서들이 당사업에 주력하여 당의 시, 군강화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데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당중앙위원회가 시, 군당위원회들의 당정책 집행정형을 놓고 평가한 전국적인 시, 군별순위가 발표되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들에서는 당사업과 시, 군의 경제사업, 인민생활향상과 교육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부족점과 편향들이 언급, 분석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결론에서 현시기 시, 군당위원회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전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며 시, 군의 발전을 추동하는데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전국의 시, 군당위원회들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이 잘되어나가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이 촉진되게 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사업강화와 시, 군발전에서 책임비서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업과 방도들을



강철생산으로 들끓는 강선



조선의 남포시에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가 자리잡고있다.
1950년대 후반기 이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전후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철강재를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애국적인신성과 창조적인 로동으로 기적을 창조한 기업소의 전세대 로동계급의 정신과 일본제는 60여년이 흘러간 오늘도 일터마다에서 힘있게 내려치고있다.
부단한 창조와 기술혁신, 합리적인 경영관리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온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첫째인 올해에 질 좋은 철강재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국내원료와 연료로 강철생산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속에서 원료장입으로부터 용해, 조괴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개건완비되고있으며 초고전력전기로를 비롯한 전기로들과 련속조괴기의 능력이 확장되고있다.
황철의 로동계급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호소문에 화답하여 기업소에서는 올해 1월과 2월에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생산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최광호

생산능력보강을 기업전략으로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는 발전설비를 비롯한 대형기계설비들을 제작하는 기업소이다.

기업소는 현대기계공업의 발전추세에 맞게 기술개건과 생산능력확장을 진행하여오면서 조선의 대규모수력발전소들과 새로 건설되는 공장, 기업소들에 설치할 대형설비들을 생산할수 있는 위력한 설비제작기지로 전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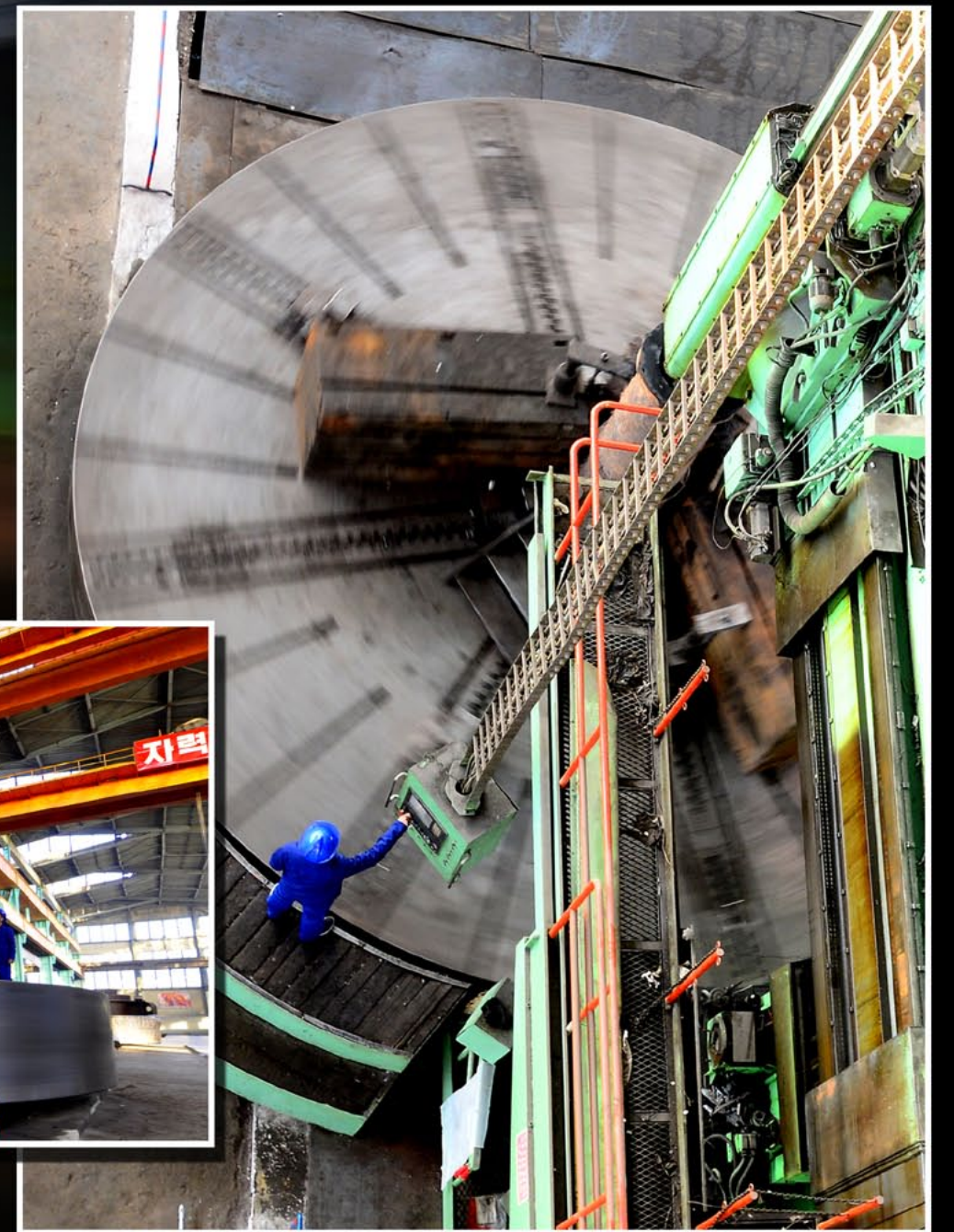
기업소에는 높은 실력을 갖춘 기술연구집단과 발전설비1가공직장, 대상설비제관직장, 대형기계직장 등이 있다.

생산공정 및 설비들의 현대화사업이 생산활동과 밀접히 결부되어 진행되고있는 기업소에서는 체관, 가공과 조립

등 모든 생산부문의 조화로운 발전이 이룩되고있으며 특히 설계와 가공기술혁신이 기술발전의 중점과제로 추진되고있다.

발전설비1가공직장과 대형기계직장을 비롯한 가공부문에서는 CNC화된 가공설비들의 장치와 조종프로그램을 갱신하여 그 성능을 개선하는것과 함께 지구, 장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대상설비생산의 속도와 질을 보장하고있다.

사진 리명국, 리철진 글 박병훈



각지에서 봄철나무심기 진행

식수절(3월 2일)을 맞으며 전국각지에서
봄철나무심기가 일제히 시작되었다.

평양시를 비롯한 각 도, 시, 군들에서
수많은 근로자들과 주민들이 펼쳐나 거리와
공원, 주변산들에 수종이 좋고 경제효과성이
높은 나무들을 정성껏 심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하루동안에만도 전국
적으로 백수십만그루에 달하는 나무를 심었
다고 전하였다.

사진 리철진, 리진혁 글 리진범



3.8 국제부녀절





3.8 국제부녀절을 축하합니다

현시기 세계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정치적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지위를 개선하는 문제는 국제사회앞에 나선 절박한 요구이다.

여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모든 나라들에서 여성들의 정치적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사회적불평등을 없애고 여성들을 존중하는 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

오늘 조선여성들은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있는것은 물론 사회발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다.

지난 세기 전반기까지만 하여도

조선여성들은 봉건적질곡에 시들어왔으며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1905년-1945년)에는 강제로동도구, 칩락군의 성노예로 끌려다니다가 무참히 학살되는 력사에 보기 드문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였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 남녀의 차별없는 인륜적평등을 보장하고 부녀의 사회상대우를 제고하며 여성들의 인격을 존중하는것을 여성문제해결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지난날 문밖출입조차 제대로 할수 없었던 조선여성들이 조국의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에서 자기의 지위를 당당히 차지하고 특출한 업적을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고 남녀평등권법령발포 등 여성해방문제를 법적,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시였다.

조선로동당과 정부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과정에 가정을 돌보고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오늘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

여성들은 정치와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며 나라와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고있다.

조선의 항일대전사와 공화국의 건국과 발전사에는 조국의 자유와 해방, 부강발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조선여성들의 고귀한 피땀이 력력히 스며있다.

백절불굴의 기개와 혁명적신념을 지니고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일제침략자들을 전몰케 한 항일빨찌산의 여성혁명렬사들과 조국해방전쟁시기 청춘과 생명을 다 바친 여성

혁명가들, 전후복구건설을 비롯한 준엄한 혁명의 년대들을 과감히 헤쳐온 많은 여성들은 오늘도 사람들의 기억속에 영생하고있다.

전세대 여성들이 발휘하였던 고귀한 정신과 투쟁기풍을 이어 조선여성들은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조국의 방선을 굳건히 수호하고 허리띠를 조여매면서도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지금 이 시각도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방역전선을 굳건히 지켜가는 보건일군들, 나라를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빛내이기 위해 고심어린 노력을 깡그리 바쳐가는 과학자, 교육자들과 공장, 기업소, 농촌들에서 성실한 땀을 흘려가는 로력혁신자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키는 조국보위초소의 군인들속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있다.

경제발전을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있는 조선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커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여성

들의 사회적지위는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다.

여성들의 고결한 인간적품모는 사회의 화목과 단합을 꽃피우는 자양분이다.

영예군인과 한생의 길동무가 되고 전쟁로병, 공로자들의 생활을 진정을 다하여 보살피주며 뜻밖의 재해를 입은 사람들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도와주는 미덕은 조선여성들속에서 평범한것으로 되고있다.

고상한 인간미와 도덕률리로 행복한 생활을 끊임없이 펼쳐가고있는 여성들이 있어 덕과 정으로 결합된 조선의 사회주의는 하나의 대가정으로 더욱 공고발전하고있다.

사랑과 정으로 뭉쳐진 나라, 웃음 넘치는 사회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조선여성들은 여성의 참다운 권리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전세계의 모든 여성들에게 열렬하고 따뜻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있다.

글 최원철



클라라 제트킨

국제여성운동의 저명한 활동가인 클라라 제트킨은 1857년 7월 5일 도이칠란드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책임기를 즐겼으며 특히 아버지가 간수하고있던 프랑크혁명 등을 서술한 도서를 즐겨읽었다.

15살 나던 해에 사범학교에 입학한 그는 여성 및 사회문제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을뿐아니라 맑스와 엥겔스의 저서를 탐독하기 시작하였다.

제트킨은 1879년에 사회민주당에 입당하였으며 혁명투쟁에 참가하였다. 그는 군중속에 들어가 로동자들의 투쟁을 조직지도함으로써 광범한 근로여성들의 존경을 받았다. 1889년 7월에 제2국제당이 창건될 당시 비서로 추천된 제트킨은 창립대회연단에서 여성해방에 관한 연설을 하였다.

1910년 8월 단마르크의 수도 쾰른하르네에서 제트킨의 사회하에 열린 제2차 국제사회주의자녀성대회에서는 1909년 3월 8일에 남녀평등권을 요구하여 파업과 시위를 벌린 미국 시카고의 여성방직로동자들에게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제트킨의 제의에 의하여 3월 8일을 국제부녀절로 하기로 하였다.

클라라 제트킨은 여성해방위업에 일생을 바친것으로 하여 《국제여성운동의 어머니》로 불리우게 되었다.



평양제4소학교 교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인민교원 길금순

평양제4소학교 교장 길금순은 인민교원이다.

그는 37년간 교단에서 꽃을 가꾸는 원예사처럼 학생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였다.

교원, 부교장을 거쳐 교장으로 사업하면서 새 교수방법들을 끊임없이 창안하였으며 많은 제자들과 20여명의 모범교수자들도 키워냈다.

평양제4소학교가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실력이 손꼽히고 문학과 체육, 예술 분야의 경연들에서 항상 우승을 쟁취하게 된데는 그의 노력이 깃들어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직포공인 리명순은 공훈방직공이다.

주체83(1994)년 9월 직포공이 된 초기 4대의 직기를 맡았던 그가 담당한 직기대수는 점차 두자리수를 넘어섰다.

15년이 지나서는 7개월만에 2년분계획을 완수하였다.

기대순회방법에 대하여 고심하면서 기대당 천생산량을 하루정량의 2배로 높일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고 기대수리능력도 갖춘 그가 지금껏 짠 천의 길이는 2백수십만m로서 공장직포공들가운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직포공
공훈방직공 리명순



모란봉체육단 유술책임감독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인민체육인 계순희

10대에 제26차 올림픽경기대회 여자 유술 48kg급경기에서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키며 금메달을 쟁취한 계순희는 주체90(2001)년 세계유술선수권대회 여자유술 52kg급경기에서 세계선수권을 쟁취하였으며 주체92(2003)년과 주체94(2005)년, 주체96(2007)년에 있는 세계유술선수권대회 여자유술 57kg급경기들에서도 련이어 세계선수권을 획득하였다.

그는 지금 자기의 선수시절이 흘러간 모란봉체육단의 유술책임감독으로 사업하고있다.

자기와 같은 세계적인 유술강자들을 키워내는것이 그의 목표이다.

그가 키운 선수들은 오늘 국내 및 국제경기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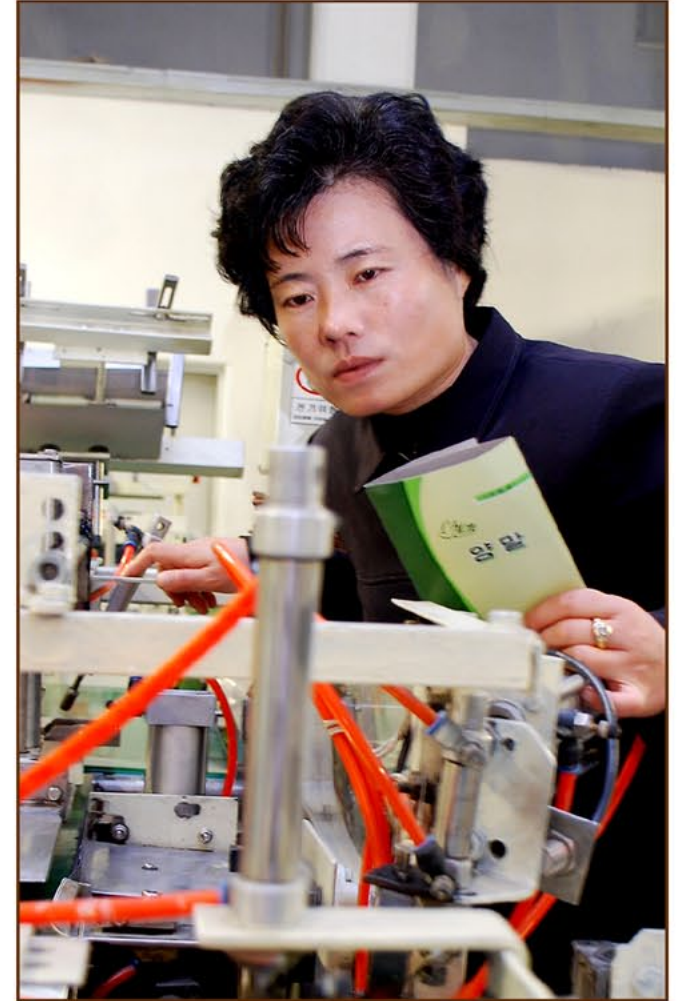
국가과학원 식물학연구소 실장 유선옥은 나라의 생물농약분야에서 개척자의 한사람으로 인정받고있다.

그에 의하여 첫 식물성농약 《명록》이 개발되었다.

주체99(2010)년에는 국내의 생물자원을 리용하는 천연생물활성제를 개발하였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는 2017년에 천연생물활성제를 세계적인 천연로색 무공해유기복합비료로 확정하였다.

성능높은 생물농약들을 개발하여 나라의 농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그는 공훈과학자칭호와 과학자들에게 주는 최고상인 2.16과학기술상을 수여받았다.



평양기계대학 연구사
공훈과학자 박사 부교수 조수경

평양기계대학 연구사인 조수경의 사업환경은 거의나 조용한 서재나 연구실이 아니다.

주체86(1997)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사의 첫걸음을 내디딘 때로부터 지금껏 그의 《연구실》은 여러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현장이였다.

해박한 지식과 식을줄 모르는 창조적 열정을 지니고 20여년간에 걸쳐 경공업 생산기지들에서 절실하게 요구하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진행하여오는 과정에 그는 온 나라가 다 아는 공훈과학자, 박사가 되었다.



국가과학원 식물학연구소 실장
공훈과학자 유선옥

변모되는 평양

2010년대에 평양의 모습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있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수도 시민들의 살림집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통이 큰 목표들을 제시하고 줄기차게 실행해나갔다.

창전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등 현대적인 거리와 주택지구들이 곳곳에 솟아나고 과학자, 교육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새 살림집들이 배정되었다.

지난 1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는 올해부터 시작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기간에 평양시에서만도 해마다 1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할것을 결정하였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오해연







누구나 즐겨찾는 백화점

2년전 동평양의 문수지구에 상업뿐아니라 편의, 급양 등 여러가지 봉사기능을 갖춘 대성백화점이 개건되어 개업하였다. 화려한 건축양식의 백화점에 꾸려진 각이한 형식의 상품대들과 편의봉사시설들, 식사실들과 청량음료홀, 어린이놀이장, 전자오락실, 당구장과 야외의 전시장 등은 종합적이며 다기능화된 봉사기지의 특징을 보여주고있다. 봉사환경전반에 선편리성, 선미학성이 구현된 백화점은 오늘 인민들이 즐겨찾는 대중봉사기지의 하나로 되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한수영





Kaesong Koryo Insam
Cosmetics

개성고려인삼화장품



천연적이고
저자극적이며
기능적인

화장품



평양화장품공장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평천구역 안산동
국제전화: 850-2-341-8168
전자우편: mh20150204@star-co.net.kp



력사의 갈피를 더듬어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발표를 환영하는 농민들

지금으로부터 75년전 조선에서는 토지개혁법령이 발표되었다.
토지개혁법령은 조선농민들을 모진 착취와 억압에 시달리게 하던 봉건적 토지소유관계와 착취제도를 영원히 없애고 제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어보려던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며 농업생산력을 봉건적질곡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빨리 발전시킴으로써 전반적민족경제의 부흥발전을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었다.



토지분여를 위한 측량을 하고있다.

주체34(1945)년 8월 15일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주개혁을 수행함에 있어서 토지개혁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시였다.

조선의 실정에 맞게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이께서는 평안남도대동군을 비롯한 여러 지방에 나가시여 한달이상이나 농민들속에 들어가시여 농촌형편과 땅에 대한 농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면서 조선의 농촌에 복잡하게 얽힌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해부학적으로 분석하시고 토지의 몰수대상과 몰수 및 분배방법, 소작제도를 영원히 없애기 위한 방도를 확정하시였다.

이에 기초하시여 밤을 지새우시면서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줄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의 매 조항들을 하나하나 완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성하신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은 주체35(1946)년 3월 5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법령으로 발표되였다.

법령은 모두 17개 조로 되어있다.

법령에는 조선농촌의 토지소유관계와 계급적력량관계, 땅에 대한 농민들의 세기적숙망, 항일혁명투쟁시기의 토지강령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만드는 원칙이 밝혀져있다.

토지몰수대상은 일본국가와 일본인 및 일본인단체가 소유한 조선의 일체 토지, 일체의 군사적강점과 략탈정책집행에 앞장섰던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소유지였다.

법령은 5정보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그것을 소작주면서 농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있는자들을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대표하는 지주계급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토지를 무상몰수하도록 하였다.

5정보의 토지를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부 자기 로력으로 경작한 사람은 남을 착취하지 않은것만큼 지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그의 토지도 몰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5정보의 토지를 소유한자가 1정보는 자작하고 4정보를 소작 주었다면 그를 지주로 보지 않고 소작준 4정보의 토지만 몰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체 소작제도를 금지하며 로력자수에 따라 토지를 균등하게 무상분배하고 분여한 토지의 매매와 저당을 금지하며 몰수한 산림, 관개시설, 파수원 및 농민들이 경작하기에 불리한 일부 토지를 국유화할것을 규정하였다.

토지개혁법령은 인구의 80%에 달하였던 농민들이 전체 농가호수의 4%에 불과한 지주들로부터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받으면서 비참한 생활을 강요당하고



토지를 분여받은 농민들

있던 조선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를 가장 철저히 해결할수 있게 한 혁명적이며 독창적인 법령이었으며 농민들을 봉건적착취와 빈궁에서 해방하기 위한 인민적인 법령이었다.

법령이 발표되어 조선의 북반부지역에서는 짧은 기간에 《토지는 발같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밑에 토지개혁이 성과적으로 실시되였다.

토지개혁법령발포와 실시는 현실적인 조건과 과학적인 분석, 앞으로의

농업발전과 농민생활향상을 담보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생활력이 뚜렷이 과시되였다.

제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보았으면 하던 평생소원, 세기적숙망을 풀어준 고마움을 담아 농민들은 분여받은 땅을 김일성장군님 주신 땅이라고 하였다.

토지개혁의 실시로 하여 농민들의 애국열의는 비상이 높아져 조선의 건국사업은 빠른 속도로 진척되였다.

식량생산은 해방전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으며 각지의 농민들이 많은 식량을



분여받은 땅에 첫 씨앗을 뿌린다.



모내기를 하는 농민들



첫 수확으로 기뻐하는 농민들

애국미로 헌납하였다.

나라에서 준 땅이 그토록 소중하기에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수많은 농민들이 인민군대에 자원입대하여 조국을 지켜싸웠으며 3년간의 간고한 전쟁속에서도 식량부족을 몰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농민들의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전쟁으로 하여 모든것이 파괴되고 여지없이 황폐화된 농촌을 부흥시키고

농민생활을 향상시키려는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인민적정책인 사회주의 농업협동화는 성과적으로 추진되었다.

해방후 토지개혁법령의 발포는 조선에서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훌륭히 해결하고 사회주의농업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놓을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한 역사적인 사변이었다.

글 최원철

약 1억 3 000만년전의 새화석 발굴



김일성종합대학 지질학부의 고생물학 연구집단이 평안북도 신의주시 백토동에 있는 화석보호구의 위치를 새로 설정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를 심화시켜오는 과정에 중생대의 새화석을 발굴하였다. 백토동지구에 분포되어있는 중생대 백악기하세층에 속하는 신의주주층의 3번층(약 1억 3 000만년전)에서 발굴된

화석은 새의 대가리뼈, 발가락뼈, 날개의 1차날깃 11개와 작은 깃가지들까지 선명하게 보존되어있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것이다. 연구자들은 날깃의 형태구조적특징으로 보아 날아다니는데 적응된 새라는것을 학술적으로 고증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또한 백토동지구에서 지금까지 발굴된 척추동물화석, 무척추동물화석, 식물화석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이곳이 중생대 조선일대의 모든 척추동물들이 출현한 곳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그리고 중생대 백악기하세를 대표하는 신의주생물군을 새로 설정하고 조선의 중생대 생태환경연구에서 학술적의의가 있는 백토동화석보호구를 새롭게 확정하였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는 그들이 진행한 고생물학적연구결과가 조선의 중생대 백악기생물군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데서 학술적가치가 크다고 평가되었다. 신의주시 백토동지구에서 화석으로 발굴된 중생대의 새는 《백토새》로 명명되어 평양의 대성산기슭에 있는 자연박물관에 전시되었다. 전문가들은 신의주시 백토동지구에서 깃을 보존한 중생대의 새화석이 발굴 고증됨으로써 조선이 인류의 발상지일뿐아니라 조류의 발상지라는것을 보다 무게있게 확증할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고있다.

사진, 글 윤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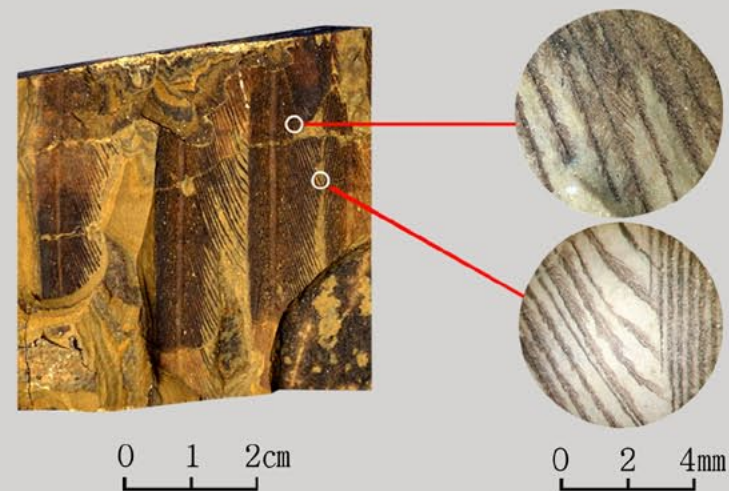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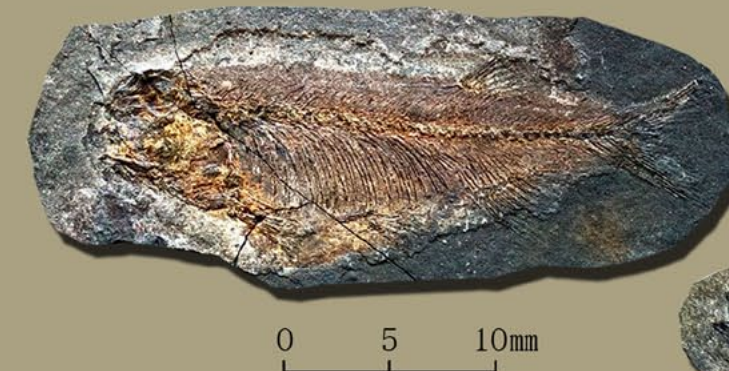
깃을 보존한 새화석



깃을 보존한 새화석의 세부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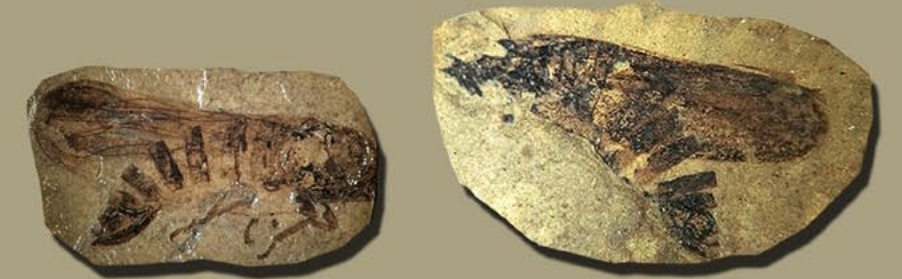
깃을 보존한 새화석의 깃가지와 작은 깃가지



물고기화석들



곤충화석들 (매미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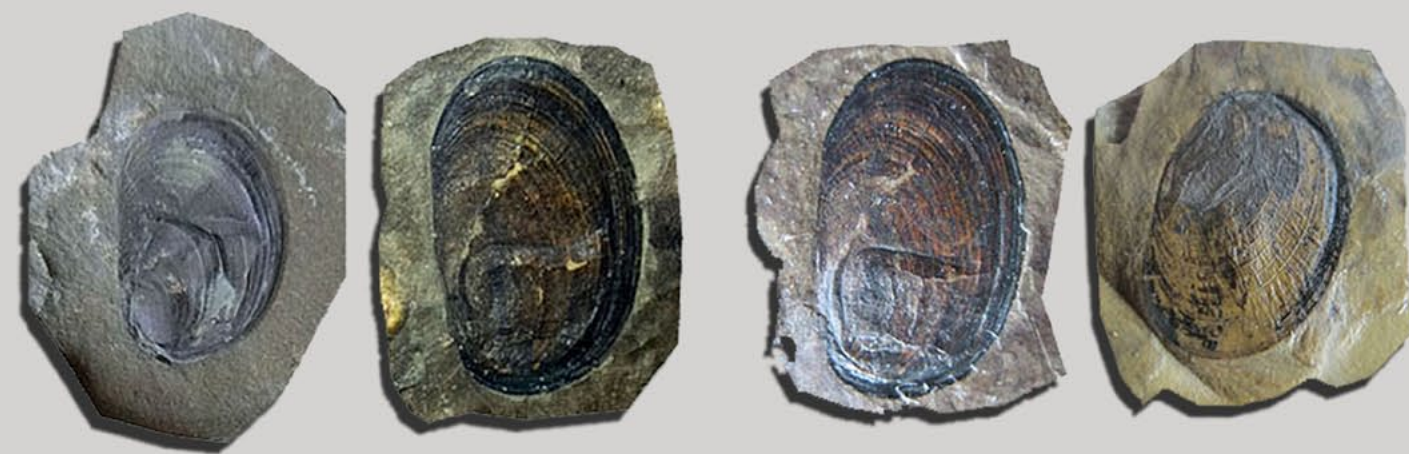
공룡이발화석과 원시포유동물화석



곤충화석들 (잠자리류)



종자고사리류



0 4 8mm

엽지개화석들



0 4 8mm

골뱅이화석들



옥류관의 평양랭면



평양랭면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조선의 민족음식이다.
평양랭면이 이름나게 된것은 대체로 국수원료와 옥수, 꾸미와 고명, 국수담는 그릇과 국수말기 등에서 류다른 특징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평양랭면의 원료는 메밀가루이다. 건강에 좋은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 예로부터 장수식품으로 일러오는 메밀로 국수를 만들면 국수오리가 지나치게 질기지도 않고 먹기에 맞춤하다.
또한 메밀의 고유한 맛이 음식맛을 더욱 돋구어준다.
평양랭면의 특징은 다음으로 국수를 마는 옥수맛이 특별한데 있다.
국수그릇으로는 음식이름과 어울리면서 시원한감을 주는 놋대접을 쓰는데 그것으로 하여 눈맛부터 제격이다.
음식을 낼 때에는 먼저 대접에 옥수를 조금 두고 국수를 사려서 수북이 담는다.

다음으로 그우에 김치, 고기, 닭알, 배, 오이 등의 순서로 꾸미를 얹고 실과, 실고추 등으로 고명한 후 옥수를 붓는다.
이렇게 말아낸 평양랭면의 맛은 그 진미를 이루 표현할수 없을만큼 훌륭하여 조선국수의 대명사로, 민족음식을 대표하는 요리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오늘 평양의 식당치고 평양랭면을 내는 식당이 많지만 제일선참으로 꼽는 식당은 두말할것없이 풍치수려한 모란봉기슭의 대동강반에 자리잡고있는 옥류관이다.
옥류관이 평양랭면으로 이름났다면 평양랭면은 옥류관과 더불어 유명해지게 되었다.
푸른 추녀가 건듯 들린 옥류관을 찾아 평양랭면을 맛보지 못하였다면 결코 평양에 와보았다고 할수 없다.

사진 방은심 글 엄향심





민속명절

정월대보름





에 대한 긍지감과 더 좋은 래일에 대한 희망을 안고 정월대보름명절을 유쾌하고 즐겁게 보내고있다.

올해의 정월대보름명절인 2월 26일 대동강반의 련광정, 모란봉의 울밀대 등에서는 달맞이를 하는 평양시민들을 볼수 있었다. 맑은 하늘에 두둥실 솟아 오른 대보름날의 달은 올해에 유난히 크고 밝았다.

사진 안철룡, 김성철 글 강수정



예로부터 조선민족은 설명절다음의 첫 보름날을 정월대보름 또는 대보름이라 부르면서 이날을 명절로 즐기고있다.

대보름날을 명절로 맞았다는 력사기록은 삼국시기(B.C. 3세기 중엽-A.D. 7세기 중엽)부터 보인다. 고려(918년-1392년)시기에는 이 명절이 국가가 제정한 9개 민속명절중의 하나였다.

명절은 보통 정월 열나흘인 전날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날을 작은보름, 당일을 대보름이라고 하였다.

조선민족은 정월대보름명절을 맞을 때마다 새해의 행운과 풍년을 바라며 여러가지 의례적인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명절행사로는 작은보름날의 난가리대세우기와 대보름날의 달맞이, 화불놀이 등 여러가지가 있었다.

작은보름날에는 집안마당이나 외양간뒤에 벼,

수수, 기장, 조 등의 이삭을 달아매고 그아래에 풍년을 념원하는 글을 쓴 기발을 매단 긴 장대를 세웠는데 이것이 난가리대세우기였다.

난가리대를 세우면 어린이들은 그 주변을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한해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위주로 한 이날의 의례로 난가리대를 세우는것과 함께 아침 일찍 퇴비를 논밭에 내기도 하였다.

대보름날 저녁에는 전국의 그 어느 마을에서나 사람들이 모두 산언덕을 비롯한 달구경하기 좋은 곳들에서 달뜨기를 기다리면서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다가 솟아오르는 둥근달을 구경하였는데 이것이 오늘까지 전해지고있는 달맞이이다.

당시에는 달을 먼저 본 사람들에게 그해의 행운이 차례진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떠오른 보름달의 모양을 보고 한해농사의 흥풍을 《예언》하기도 하였다.

이날에 바줄당기기, 연떡우기, 바람개비놀이 등 대중적인 민속경기와 놀이들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화불놀이, 바다가마을들에서 진행하던 봉죽놀이 등 지방마다 특색있는 놀이들도 있다.

명절날에는 집집마다 명절음식들을 차려놓고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정을 두러이하였다.

정월대보름의 명절음식으로는 오크밥과 약밥, 복쌈, 9가지 마른나물반찬 등이 있었다.

작은보름날의 점심으로는 장수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비낀 국수를 먹고 대보름날 아침에는 덩히지 않은 찬 술을 마시는 풍속도 이 명절과 더불어 전해지고있다.

오늘도 조선인민은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풍속



오랜 력사속에 발전하여오는 조선화는 민족의 감정과 정서를 반영하고있다.

선조들이 남긴 미술작품들은 당대의 세태풍속과 함께 아름답고 고상한 회화형식으로서의 조선화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작품들에서는 다른 회화형식들보다 강조와 생략, 집약과 함축의 수법이 뚜렷하게 표현되었다.

특히 환경묘사에서 작품의 생활적내용을 밝히는데 반드시 필요한것만 주고 나머지는 대담하게 생략하는 수법이 적용되었다.

하여 화면에 많은것이 담겨지지 않았어도 정서적인 느낌이 강하고 볼수록 사색하게 하는 미적충동을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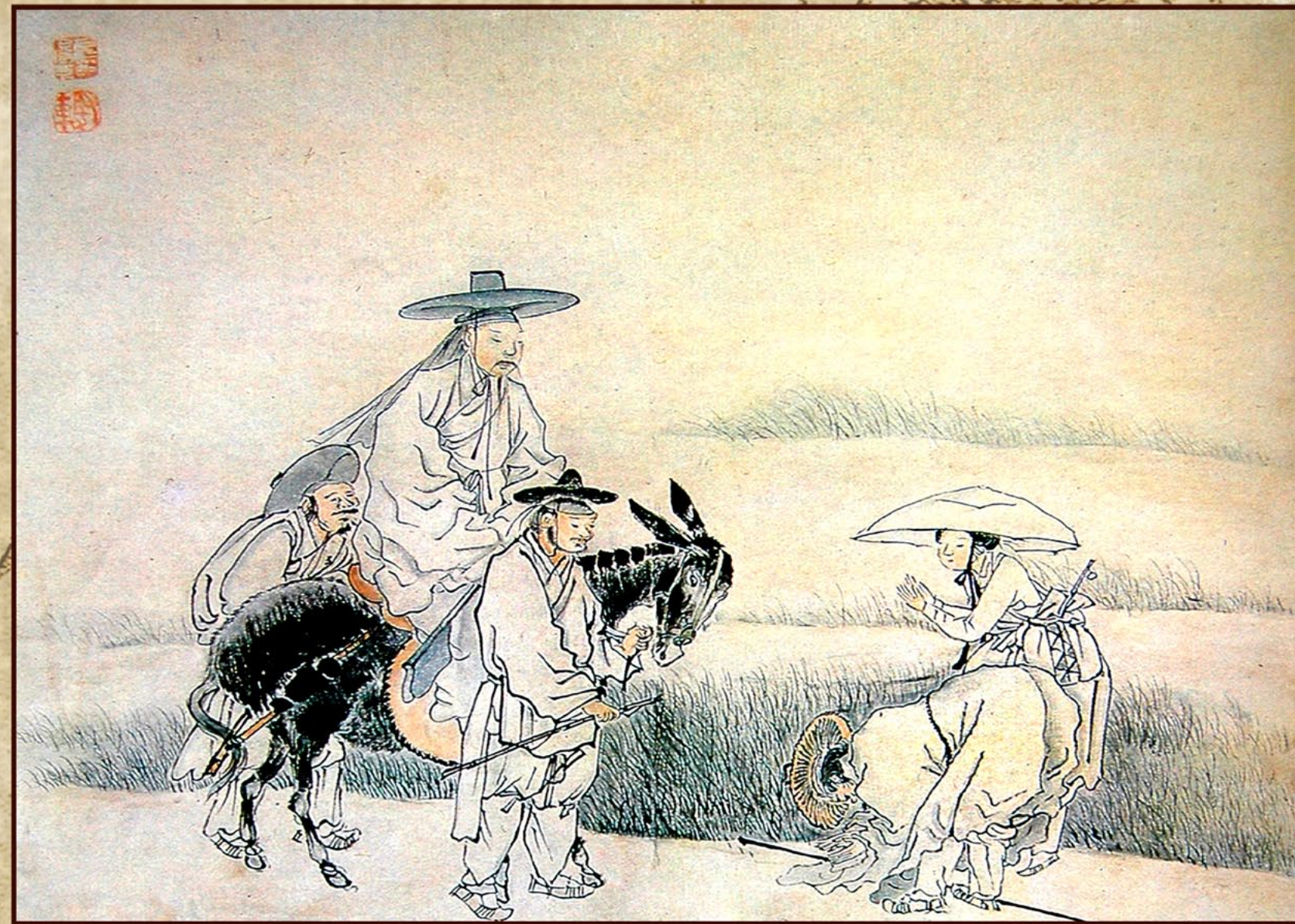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김두량을 비롯한 당대의 이름난 화가들이 창작한 모든 작품들이 색채가 연하면서도 선명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데 이것이 진한 색보다 연하고 선명한 색, 무거운색보다 가벼운색을 더 좋아하는 민족적기호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고 평가하고있다.

글 리진범

옛 그림속에서



《소몰이군》 김두량(1696년-1763년)



《량반과 농민》 김득신(1754년-1822년)



《사공》 리인문(1745년-1821년)



《포구》 리인문(1745년-1821년)



《시전거리》 강세항(1713년-1791년)



《송하인물도》 리재관(1783년-1837년)



민족의 춤가락을 전 해 가 는 사 람 들

피바다가극단 조선무용연구소는 역사가 있는 민족무용연구기관이다.

주체35(1946)년에 최승희무용연구소로 발족된 연구소는 지난 시기 민속춤가락발굴과 보존사업을 비롯하여 무용부문의 이론실천적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여 조선민족무용 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새기었다.

연구소의 초대소장이었던 최승희는 조선의 민족무용을 현대화하는데 특출한 기여를 하였다.

그는 민족적정서가 짙고 우아한 춤가락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정립하여 주체46(1957)년에 도서 《조선민족무용기본》을 내놓았다.

도서는 조선장단에 기초한 무용작품창작의 이론적기초를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무용가들의

환영을 받았다.

연구소에서는 주체61(1972)년에 새로운 무용 표기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당시 세계적으로 라반무용동작표기법 등 여러 무용표기법들이 있었지만 무용물동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창작실천에서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있었다.

이곳 연구사들은 10여년간에 걸치는 진지하고 꾸준한 탐구끝에 인간의 틀동적움직임을 기본으로 무용의 모든 형상적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기록할수 있는 자모식무용표기법을 완성하여 주체76(1987)년에 발표하였다.

자모식무용표기법은 주체81(199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국제무용리사회 제10차총회에서 그 과학성과 실용성으로 하여 세계 여러 나라

전 무용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인민배우 최승희



도서 《조선민족무용기본》은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무용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연구소에서는 무용보편집프로그램 《백학》을 개발하여 무용정보들의 작성, 편집 등을 정보화할수 있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연구소에서는 《조선무용사》, 《무용기초리론》, 《우리나라 민속무용의 특성》, 《조선무용기초동작수행원리》 등의 도서들을 집필하여 무용창작과 형상, 무용교육사업에도 적극 이바지하였다.

지금 연구소에서는 각 지방들에서 전해지는 조선춤의

가락들을 빠짐없이 발굴하여 보존하기 위한 사업과 현대적 미감에 맞게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활발히 벌리고있다.

뿐만아니라 무용심리학, 무용미학, 무용교육학을 비롯한 경제 과학들을 개척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고있다.

연구소의 남수향연구사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조선춤의 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자신들의 노력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사진 방은심 글 엄향심





김일성상계관인 인민예술가 임사준

도자공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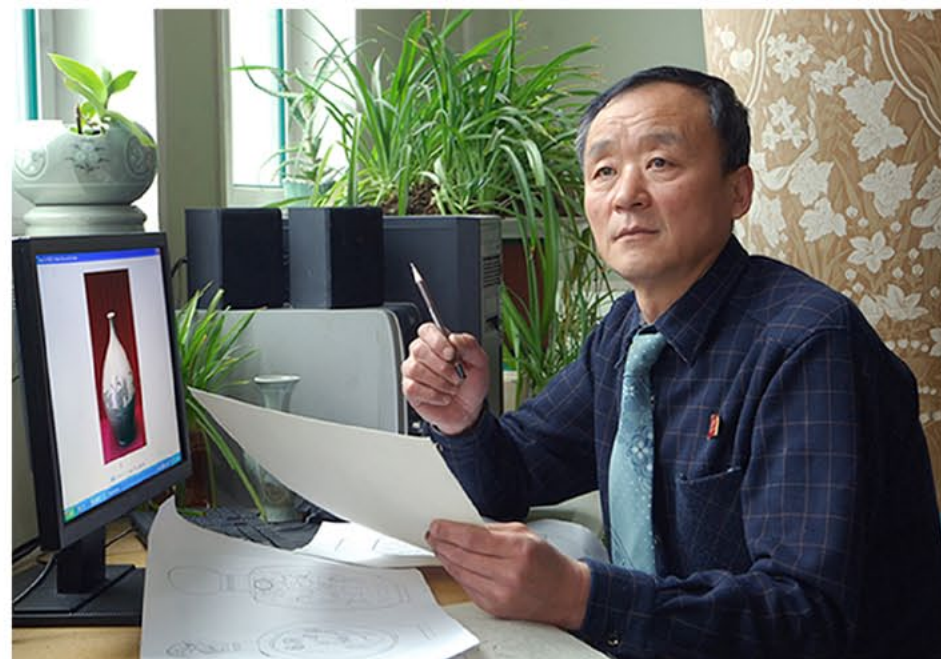




맨아들 공훈예술가 임경익



딸 임혜옥



둘째아들 임근익



셋째아들 임관익



넷째아들 임호익

조선의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918년 - 1392년)의 공예가들은 비취색의 바탕에 상감기법이 적용된 우아한 형태의 자기를 처음으로 제작하였다.

그때로부터 이 비취색자기는 국호까지 붙여져 고려청자기로 세상에 이름나게 되었다.

이 고려청자기의 아름다움, 매력을 천여년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도 훌륭히 펼쳐가는 공예가들중에는 만수대창작사 창작가였던 임사준과 그의 일가도 있다.

임사준(1927. 8-2007. 4.)은 지난 세기 력사기록으로만 남아있던 고려청자기가 세상에 다시 태어나 빛을 뿌릴수 있게 하는데 이바지한 이름있는 도자공예가이다.

그는 고려자기제조에 알맞는 재료들을 새롭게 찾아냈으며 그 배합비율과 성형, 소성법을 완성하는것과 함께 자기제조에 특대형화를 실현하였다.

주체37(1948)년 첫 작품인 《함박꽃장식꽃병》을 내놓은 때로부터 생의 전기간 그가 제조한 고려청자기들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그가운데는 주체87(1998)년에 창작한 높이 2. 16m의 특대형고려청자기와 《인삼꽃면속무늬상감청자꽃병》, 《목란꽃상감장식청자꽃병》 등과 같이 국보로 소장된 걸작품들도 많다.

주체72(1983)년 일본에서 진행된 현대고려청자기 2인전시회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된 전람회들에서 그의 작품들은 절찬을 받곤 하였다.

임사준은 자기공예의 전통을 이어갈 후비들도 착실하게 키웠다.

그의 자식 6남매중 5명이 도자공예가이다. 그들은 철이 들적부터 아버지가 전수하는 자기제조 기술과 묘리들을 익히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되었었다.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을 받는 과정에 맨아들 임경익은 자기성형, 둘째아들 임근익은 자기소성, 셋째아들 임관익과 딸 임혜옥은 상감기법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제각기 소유하게 되었다.

만수대창작사 도자기창작단 창작가들로 된 그들이 저마다 《당초문진사상감장식청자꽃병》을 비롯한 여러 작품들을 련이어 내놓았을 때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중국, 영국, 싱가포르 등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된 전람회들에서 고려청자기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었다.

임경익은 주체99(2010)년에 높이 2. 6m의 《소나무와 학상감장식청자꽃병》을 창작하였다.

《해오라기상감장식꽃병》, 《버들과 백조상감장식꽃병》 등 그들이 창작한 수많은 작품들이 국가미술 전람회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조선미술박물관에 국보로 소장되었다.

오늘 임사준의 손녀인 임애경이 그들속에 들어섰다. 손자인 임창성 역시 평양미술대학에서 이름있는 도자공예가가 될 꿈을 자래우고있다.

사진 리광성 글 김선경



2007년 중국경덕진국제도자기박람회에 출품하였던 《인동무늬진사상감장식 청자꽃병》과 상장



제4차 중국 《대호상》설계박람회에 출품하였던 《갈대와 기러기무늬상감 투각장식청자꽃병》과 컵, 상장



일반적으로 국조는 해당 나라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지고 역사적으로 친숙해진 새 또는 특산종의 새들로 정해지고있다. 그러므로 국조에는 해당 나라의 풍토와 문화, 사람들의 생활관습과 관련되는것이 많다.

독수리목 독수리과 새매속에 속하는 맹금류인 참매는 조선의 전반적지역의 산지대에서 사철 사는 새이다. 몸통은 그리 크지 않지만 균형잡힌 외모와 밝은 눈, 날카로운 부리와 역센 발톱, 매우 빠른 속도와 령리하고 용맹스러운 기질을 가지고있다.

조선인민은 오랜 옛날부터 참매를 매우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길들여 사냥에 널리 리용하여왔다.

삼국시기(B.C. 3세기 중엽-A.D. 7세기 중엽)때에는 이미 민가들에서 매를 기르고있었고 고려(918년-1392년)때에는 매를 기르는 관청까지 있었다.

참매를 일명 보라매, 푸른매 또는 꿩매라고도 하였으며 주변나라들에는 해동청으로 알려져있었다. 해동청은 조선의 푸른매라는 뜻인데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이웃나라들에서까지 수요가 매우 높았다고 한다.

몸색은 여러가지이다. 보통수컷의 정수리와 뒤통수부위는 검은색이고 뒤목은 밤색을 띤 검은색이며 날개깃은 검은밤색이다. 가슴, 배, 다리깃은 흰색인데 검은밤색의 가는 가로무늬가 있다.

알컷은 수컷보다 크다.

참매는 산림에 살면서 주로 쥐류와 꿩, 비둘기, 메토끼 등을 잡아먹는다. 참매는 공중에서 빙빙 돌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번개같이 내리쫓는다. 대체로 무리를 짓지 않고 한마리씩 생활하며 번식기간에만 짝을 이룬다.

참매는 보통 3년생부터 번식활동을 하며 그 시기는 3월초-7월말이다.

키나무의 높은 가지우에 작은 나무가지로 접시모양의 둥지를 틀고 한배에 알을 2~4개정도 낳는다. 참매는 주체97(2008)년 4월에 조선의 국조로 선정되었다.

글 최광호



참매의 생활습성과 생태적특성을 고찰하고 보호증식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있는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 연구사들



참매를 그린 삼재부적



참매를 그린 세화



20세기초 조선의 매사냥군의 모습

개성고려인삼



수려한 산천경관을 자랑하는 조선에는 인간의 무병장수에 아주 리로운 진귀한 약초들이 많아 그 재배와 가공, 리용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다.

특히 뿌리가 사람모양처럼 생겼다고 하여 인삼이라 부르는 이 신비로운 약초의 재배역사는 수천년을 헤아리며 1 000여년전부터는 당시의 국호인 고려의 이름을 달아 고려인삼으로 세계에 공인되어 불로장생약으로 일러오고있다.

조선의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918년-1392년)시기 사람들은 산삼을 밭에서 가꾼 고구려(B.C. 277년-A.D. 668년까지 존재한 조선의 첫 봉건국가)시기의 비법을 계승하여오는 과정에 인삼씨를 심어 6년만에 캐어 가공하는 홍삼 및 백삼제조법도 창안하였는데 그 방법들은 전통화되어 오늘도 사용되고있다.

고려인삼이라고 하면 개성일대에서 자래운 인삼을 가리킨것으로서 세계적판도에서 그 인기가 높은것은 가장 적합하면서도 특이한 기후와 풍토에서 재배된 개성인삼의 독특한 약효능에 있다.

개성은 인삼의 원산지이며 고려시기에 이르러 만병통치약 개성고려인삼의 교역가치는 금은보화를 능가하였다.



유명한 인삼포로 알려진 개성시 송악산기슭의 인삼농장들에서는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개성고려인삼원종들에 의한 인삼재배법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다.

개성고려인삼에는 인삼사포닌배당체 42종, 인삼정유, 스테롤, 탄수화물, 유리아미노산, 효소, 기름, 수지, 무기물, 비타민A₁, A₂, B₁, B₂ 등 각종 약효성분이 있다.

개성고려인삼은 발에서 캐낸 상태의 수삼(수분 70~80%이상), 수삼을 물로 씻어 다듬고 코르크층을 벗겨 말린 백삼(수분 11%이하), 수삼을 일정한 온도에서 증기로 찌서 말린 홍삼(수분 11%이하), 수삼을 사탕물에 졸인 당삼과 잔뿌리삼인 미삼으로 분류한다.

평양과 지방의 여러곳에는 인삼가공 및 인삼제품생산기지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조선의 인삼재배, 가공업의 중심지인 개성시에 자리잡고있는 개성고려인삼가공공장은 강장, 강정, 로화방지, 항암, 면역부활, 방사선보호작용에서 으뜸인 6년생 개성고려인삼으로 수십가지의 보약, 건강식품들을 다량생산하는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인삼가공기지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개성고려인삼제품만 해도 그 가지수가 수백가지나 된다.

젊음과 원기를 되찾아주는 향기로운 개성고려인삼술은 국제상품전시회들에서 여러차례 금메달을 보유하였다.

5장을 보호하고 뇌수와 혈관계통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신진대사를 촉진함으로써 여러 질환들에 만능적인 약효를 가지고있는 개성고려인삼보약들과 개성고려인삼건강식품, 개성고려인삼화장품들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조선인삼협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삼법에 따라 법적보호를 받고있는 개성고려인삼의 전통적인 재배와 가공방법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인류의 건강과 장수를 담보하는 독특한 약효능으로 하여 계속 상승하고있는 개성고려인삼의 세계적수요에 맞게 신용과 실리의 원칙에서 조선인삼협회의 국제적협력과 교류활동도 강화되고 있다.

개성고려인삼에 대한 세계적수요는 끊임없이 높아지고있으며 국제시장에서 인기를 끌고있다.

개성고려인삼은 현세기에 와서도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우수한 약리적효능과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며 인류의 건강증진과 문화발전에 기여할것이다.

사진, 글 오해연



A female golfer is captured in the final phase of her golf swing on a lush green course. She is wearing a bright red long-sleeved shirt, white trousers, and a red visor. Her left leg is extended forward, and her right leg is bent, with her right foot planted firmly on the grass. She is holding a golf club with both hands, and the club head is positioned high above her head. The background is a soft-focus view of a golf course with green grass and trees under bright sunlight.

An aerial photograph of a golf course, likely the one mentioned in the text. The course features several green fairways and sand traps, surrounded by dense, lush green forests. A large, calm lake is visible in the middle ground, reflecting the sky. In the background, rolling hills and mountains are visible under a clear blue sky. The entire image is framed by a thick green border.



푸른 숲 우거지게



낸곳: © 조선화보사 2021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화보 《조선》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

